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

김은정 · 박옥련*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외래교수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다양한 표현기법과 조형특성을 연구하고, 작가의 창작의도와 경향을 분석하여 예술 의상 작품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자료를 얻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예술 의상 작품사진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2000년 이후의 예술적 의상을 대상으로 작가의 창작의지가 표출된 작품들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은 왜곡, 과장, 단순화, 착시 등이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표현된 기법은 왜곡과 과장으로 나타났다. 조형특성은 확대성, 기괴성, 유희성, 가상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확대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을 살펴본 결과,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작품의 경향은 기존의 예술작품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독자적인 개성에 따라 다양한 데포르마시옹의 기법을 사용하여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 또 작가의 예술적 감성에 시대, 문화의 변화나 사회적 이슈들이 반영되어 다양한 표현과 상징적 제시에 의해 창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예술 의상,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 조형특성

본 연구는 2012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2년 4월 16일, 수정논문접수일: 2012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2일

교신저자: 박옥련, ylpark@ks.ac.kr

I. 서론

현대예술은 탈장르화라는 새로운 조형관을 바탕으로 실험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상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표현과 상징적 제시에 의한 예술 의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가가 의상을 예술 활동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의상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하거나 독특한 방식으로 설치함으로써 입는 옷만이 아니라 보는 옷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 의상은 데포르마시옹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데포르마시옹은 예술적 요구에 의해 변형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형태를 의도적으로 깨뜨려 시각적 부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독창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의도적인 왜곡된 변형에 의해 표현되는 주관적인 조형의지라 할 수 있다. 실제 미술이나 의상 작품에서도 인간 내면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자 데포르마시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상분야에서 데포르마시옹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현대 예술 의상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 이미지에 관한 연구(서승미, 2005)¹⁾, 니트 패션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에 관한 연구(주리, 2009)²⁾, 모스키노 컬렉션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에 관한 연구(이지연, 조진숙, 2011)³⁾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예술 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다양한 표현기법과 조형특성을 분석 고찰하여, 작가의 창작의도와 경향을 연구하여 예술 의상 작품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자료를 얻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과 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를 선별된 예술 의상 사진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2000년 이후의 예술적 의상 작품을 대상으로 작가의 창작의지가 표

출된 것¹⁾으로 한정하였으며, 주로 현대미술가와 섬유공예가, 패션디자이너들의 예술 의상 사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진자료의 수집은 세계적으로 주목되었던 『The Power of Making, 2011』⁴⁾, 『Dress Code: clothing as Metaphor, 2009』⁵⁾, 『Skin+Bones: Parallel Practices in Fashion and Architecture, 2006』⁶⁾ 등의 전시회에 참가한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선별된 작품과,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진 작가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의상학을 전공한 전문가 3인에 의해 104점을 선별하였다. 그러나 예술 의상 작품이 단순히 하나의 기법만을 사용하거나 하나의 조형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 이러한 작품은 중복처리 하였다. 이에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의 빈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표현기법은 177점, 조형특성은 162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II. 예술 의상

예술 의상은 의상형태에 작가의 의지가 내재된 조형성을 강조시킨 것으로, 예술과 의상의 특징을 서로 수용하여 시도된 새로운 형식이다. 이에 회화, 조각, 공예, 섬유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어, 형태가 있는 캔버스, 움직이는 조각, 부드러운 조각 등의 조형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체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전위적인 입체표현과 작품의 전시공간까지 예술 의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었을 때 나타나는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시각적인 변화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예술 의상은 ‘입을 수 있는 예술’로 한정시키지 않고 예술적인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 수공예적 요소를 부가한 의상으로서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⁷⁾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예술 의상은 작가의 예술적 표현을 조형성과 착용성을 생각하여 의

상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의상 자체를 예술로 보거나, 의상을 입고 움직이는 자체를 행위에 속로 보는 것으로, 착용자는 새로운 예술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입을 수 없는 예술 의상은 소재와 형식에 대한 자유를 위해 의상의 형태를 최소한으로 간결화 하거나 인체 형태만을 암시하는 것으로, 작가의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⁸⁾ 이미지를 강조시킨 의상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순수예술처럼 표현한 것으로, 작가의 잠재적 표현성과 실험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보는 이의 시각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 의상에 나타난 작가의 예술적 표현은 다양한 재료와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 수공예적, 토속적, 하이테크적, 전위적인 표현 등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개성적인 표현 및 연출,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 독특한 작업의 형태와 과정 등이 작가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예술 의상은 작가의 예술적 표현으로 잠재적 상상력과 실험적인 시도, 기술적 요소의 결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III. 데포르마시옹의 개념과 표현

1. 데포르마시옹의 개념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은 ‘forme’의 명사형 ‘formation’에 깨뜨린다는 ‘de’가 결합된 말로서, 변형, 왜곡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어떤 예술적 요구에 의해 대상에 변형을 가져오는 것으로, 형태를 의도적으로 깨뜨려 시각적 부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데포르메(déformer)시켜 독창적인 조형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작가는 대상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강조하거나 왜곡시켜

형태를 의도적으로 변형하게 된다. 즉,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조형적인 의도를 강조하거나 양식화, 풍자적인 과장 등을 통해 사물의 자연 상태 보다 주관적인 왜곡을 더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⁹⁾

데포르마시옹을 통한 조형물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설음으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충격을 준다. 이러한 충격은 사실과 다른 괴리감과 부자연스러움에서 오는 불쾌한 충격일 수도 있고, 사물의 몰랐던 일면이 본질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은 보는 이에게 다양한 심리적, 시각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긴장감을 주어 소통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된다.¹⁰⁾ 즉,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내재된 조형의지나 관념을 표현하여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 흥미나 충격을 주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한다.

2.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

데포르마시옹은 일반적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만, 다양한 표현기법에 의해 다른 예술적 형태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이효진(2000)¹¹⁾의 연구에서는 파괴, 풍자, 반복, 과장, 유희, 해체 등으로, 서승미(2005)¹²⁾의 연구에서는 이질적 요소의 결합, 왜곡, 변형 등으로, 이지연, 조진숙(2011)¹³⁾의 연구에서는 변형, 왜곡, 과장, 착시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을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과장, 단순화, 왜곡, 착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과장

과장은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이다. 주로 형태의 돌출이나 팽창, 크기

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신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유의 비례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특이하거나 강조된 형태를 갖게 된다.¹⁴⁾ 이는 대상의 형태를 파괴적으로 깨뜨리지 않으면서 보는 이의 시각적인 흥미와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표현기법이다.

2) 단순화

단순화는 사물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주로 사물의 구성요소들을 생략하거나 축소시켜 최소화된 기본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이는 대상의 본질적인 면을 부각시키므로, 보는 이에게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가 명료하게 전달되는 표현기법이다.

3) 왜곡

왜곡은 사물이나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비정상적이고 부조화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주로 특정부위의 생략이나 반복, 디자인요소의 위치나 형태의 기능 변경, 부분과 부분을 모순되게 결합하는 등 기형화된 형태로 표현된다. 이는 대상이 갖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므로, 보는 이에게 낯설음과 시각적 모호함이 전달되어 심리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표현기법이다.

4) 착시

착시는 사물이나 상황이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시각적으로 착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주로 상황적으로 착시가 일어나도록 연출하거나 표현적으로 착시가 일어나도록 디자인선, 소재, 디테일, 트랜스퍼 등을 이용하여 나타난다. 이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적으로 존재하도록 표현하는 것이므로, 보는 이에게 신선한 시각적 자극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기법이다.

IV. 현대예술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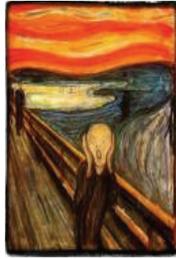
현대예술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은 현대미술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과 이러한 미술작품을 응용한 예술의상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현대미술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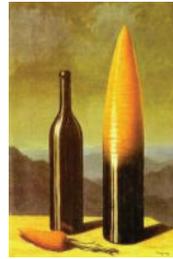
현대미술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은 입체파,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등에서 특징이 잘 나타난다. 입체파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은 대상을 변형, 왜곡, 절단하여 단순화시켜, 2차원 화면에 3차원 공간을 재구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 『아비뇰의 처녀들』로, 입체적인 인체를 평면적인 형태로 단순화시켜 분해하여 재구성하고, 명암에 의한 입체감을 표현함으로써 데포르메시켰다. 표현주의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비이성, 반전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의 작품 『절규』로, 자신의 고통과 흥분을 강렬한 원색 바탕과 거친 터치, 대담한 형태의 변형으로 과장되게 데포르메시켜, 자신의 병적인 근심과 심리적 긴장을 주관적 반응으로 나타냈다.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은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나타난 환상, 꿈, 악몽 등을 일상적인 것을 낯설어 보이게 변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그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작품 『설명』으로, 병과 당근을 이질적인 것으로 변형시켜, 무관한 두 사물 사이에 착시적인 환상을 만들어 낯설고 가공적인 신비감을 나타냈다. 추상표현주의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은 계획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감정과 몸동작에 의한 격렬한 행위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림 4>는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작품 『자화상』으로, 비틀린 거울에 얼굴이 비치



<그림 1> 파블로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 1907년
(출처: '한 권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 100장면', 1997, p.312)



<그림 2> 에드바르 뭉크
질규, 1893년
(출처: '한 권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 100장면', 1997, p.305)



<그림 3> 르네 마그리트
실명, 1954년
(출처: www.abcgallery.com)



<그림 4> 프랜시스 베이컨
자화상, 1969년
(출처: www.francis-bacon.com)

는 것처럼 동적인 붓놀림으로 뭉개고 일그러뜨려 데포르메시켰다<그림 4>.

2. 현대 미술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을 응용한 예술 의상 작품

현대 미술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을 응용한 예술 의상 작품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6>은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작품으로, 모자를 쓴 여인의 모습처럼 얼굴을 단순화시켜 앞과 옆의 얼굴을 드레스의 가슴부분에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화시킨 다각적인 측면의 얼굴로 인해 좌우대칭의 기본적인 의복구성이 변형되어 보이게 응용한 예술 의상이다. <그림 8>은 장 폴 고티에르(Jean Paul Gautier)의 작품으로, 옷 걸이에 걸린 드레스에 이질적인 인체를 결합시켜

얇은 누드 톤의 원단표면에 표현했다. 이는 드레스와 인체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낯설어 보이게 착시를 응용한 예술 의상이다. <그림 10>은 쾰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작품으로, 부서진 인체의 조각들을 집합시켜 기형적인 여성의 신체로 변형을 시켰으며, 등 부분에 여러 개의 부분 보형물을 넣어 의상을 기형적으로 왜곡시켰다. 이는 여성성에 대한 집착과 억압된 여성을 이탈된 신체이미지로 응용한 예술 의상이다. <그림 12>는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작품으로, 여성의 신체적 실루엣의 특징을 과장된 볼륨감으로 확대시켜 나타냈으며, 부풀려진 소매와 스커트를 통해 과장되게 표현된 예술 의상이다.



<그림 5> 파블로 피카소
모자 쓴 여인, 1961년
(출처: 'ART & MODE',
Regard, 1998, p.145)



<그림 6> 입 생 로랑
1978 F/W 컬렉션
(출처: 'ART & MODE',
Regard, 1998, p.145)



<그림 7> 르네 마그리트
규방철학, 1948년
(출처: 'Magritte',
Taschen, 1994, p.33)



<그림 8> 장 폴 고티에르
1993 S/S 컬렉션
(출처: 'ART & MODE',
Regard, 1998, p.149)



<그림 9> 한스 벨머
인형, 1937년 (출처: 『LE
CORPS』, Editions Assouline,
1998, p.400)



<그림 10> 꼴므 데 가르송
1997 S/S 컬렉션
(출처: 『ART & MODE』,
Regard, 1998, p.145)



<그림 11> 알렉산드르
아르키펡코, 앉아있는 여인,
1912년
(출처: 『ART & MODE』,
Regard, 1998, p.134)



<그림 12> 발렌시아가
1961 F/W 컬렉션
(출처: 『ART & MODE』,
Regard, 1998, p.135)

V. 예술 의상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특성

현대예술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이 다원화되자 예술 의상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도 더욱 과장되고 괴이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표현된 조형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특성을 살펴보면, 서승미(2005)¹⁵⁾의 연구에서는 확장성, 기괴성, 유희성, 가상성 등으로 구분하였고, 주리(2009)¹⁶⁾의 연구에서는 초현상성, 충만성, 풍자성, 다양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지연, 조진숙(2011)¹⁷⁾의 연구에서는 놀라움, 웃음, 충격, 창조성, 의외성, 가상성 등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술 의상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특성을 확대성, 유희성, 기괴성, 가상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확대성

확대성은 인체의 윤곽에 비해 공간적으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서, 입체적으로 형태나 부피가 돌출되고 팽창하거나, 길이가 신장된 양적 의미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⁸⁾ 또한 형태와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운동공간의 역

동적 확대도 포함된다. 주로 과장된 실루엣이나 디테일의 과도한 중첩을 통한 거대조형이나, 다양한 패턴과 색상, 소재의 복잡한 조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술 의상에 있어서 확대성은 의도적인 데포르마시옹을 통해 대상의 균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극대화시켜 보는 이에게 시각적 자극을 통해 집중과 흥미를 유발시킨다.

2. 유희성

유희성은 결과를 얻기보다 활동 자체의 흥미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대립시키거나 부조화한 형태로 유머러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주로 옷감이 아닌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이질적인 소재들을 봉제 또는 봉제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시켜 나타난다. 또 의상과 관련이 없는 다른 대상을 모순되게 결합시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예술 의상에 있어서 유희성은 의도적인 데포르마시옹을 통해 대상을 과장되고 희화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에게 긴장감을 해소시켜 웃음과 놀라움, 쾌감 등을 유발시킨다.

3. 기괴성

기괴성이란 괴기한 것, 부조리한 것, 극도로 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그로테스크(grotesque)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상을 의도적으로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등으로 괴이하고 부조화되게 나타나는 것이다. 주로 정형화되지 않은 신체로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며, 괴기한 소재를 통해 기형적인 신체를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술 의상에 있어서 기괴성은 기형적 신체의 일탈을 통해 불안과 공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보는 이에게 섬뜩한, 기분 나쁜, 괴기한 느낌을 주며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킨다.

4. 가상성

가상성은 시각적 현상, 착시, 환영, 환각 등의 본질적인 모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허구 혹은 상상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을 통해 현실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가상성은 비현실적, 초자연적인 부분을 재현적으로 나타내므로, 신화, 동화, 꿈, 기괴, 초능력, 유행, 초현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예술 의상에 있어서 가상성은 상상적이고 동화적으로, 때로는 전위적이고 유희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유로운 상상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이미지는 보는 이에게 신선한 자극과 환상을 유발시킨다.

VI.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 사례 분석

1. 데포르마시옹을 이용한 작품분석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을 표현기법과 조형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에 따른 작품분석

(1) 과장 기법을 이용한 예술 의상

예술 의상 작품에서 나타난 과장 기법은 주로 형태나 부피를 크게 하거나 길이를 신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의 작품으로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위한 무대의상으로써,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꽃으로만 의상을 구성하여 부케 같은 예술 의상이다. 비정상적으로 확대시킨 칼라부분에 커다란 꽃송이를 배치함으로써 과장을 극대화시켰다. <그림 14>는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작품으로, 흰색의 크고 러프한 모양의 과장된 조형물을 입체적으로 형상화시킨 예술 의상이다. 부드럽고 입체적인 인공조형물은 단순한 드레스와 대조를 이루어 과장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15>는 빅터 앤 롤프의 작품으로, 지나치게 과장된 소매와 확대된 스커트의 예술 의상이다. 여러 개의 과장된 소매를 중첩시키고 여러 층의 복잡한 스커트를 구성하여 팽창되고 확장되는 부피감을 강조하였다. <그림 16>은 시하루 시오타(Chiharu Shiota)의 작품 『피부의 기억(Memory of skin)』으로, 보통 드레스의 약 5배정도 크기의 거대한 드레스를 전시공간에 설치한 예술 의상이다. 작고 약해보이는 여성이미지와 초능력적인 이상세계를 거대한 크기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과장 기법은 비정상적인 비례감과 입체감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켜,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며 놀라움과 의외성을 유발시킨다.

(2) 단순화를 이용한 예술 의상

예술 의상 작품에서 나타난 단순화 기법은 주로 간결한 일체형이나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타나거나, 색상과 오브제의 최소화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7>은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의 작품 『항공기 드레스(Air Plan Dress)』로, 다른 디자인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섬유유리소재와 첨단



<그림 13> 빅터 앤 롤프
마탄의 사수, 2009년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14> 준야 와타나베
2000 F/W 컬렉션
(출처: www.biginjapan.com)



<그림 15> 빅터 앤 롤프
2010 S/S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16> 시하루 시오타
피부의 기억, 2001년
(출처: www.chiharu-shiota.com)



<그림 17> 후세인 살라얀
항공기 드레스, 2000 F/W 컬렉션
(출처: www.metmuseum.org)



<그림 18> 수지 맥머레이
연약함의 조화, 2004년
(출처: www.susiemacmurray.co.uk)



<그림 19> 레슬리 딜
포엠 드레스, 2002년
(출처: www.nesculpture.com)

기술을 이용하여 틀에 찍은 듯이 간결한 실루엣만을 강조한 예술 의상이다. <그림 18>은 수지 맥머레이(Susie MacMurray)의 작품『연약함의 조화(A Mixture of Frailtie)』로, 가정용 고무글러브의 하얀 속 부분이 드러나게 뒤집어 엮어서 만든 예술 의상으로,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내면을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19>는 레슬리 딜(Lesley Dill)의 작품『포엠드레스(The white hinged Poem dress)』로, 드레스 형태의 흰색 조형물에 시의 문구를 새기고 컷 아웃시킨 예술 의상으로, 언어적 특성이 잘 나타나게 한 간결함이 돋보인다. 이처럼 단순화 기법은 대상이 갖는 구성요소들을 최소화시켜 기본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직관적인 이해를 시키는데 효과적이다.

(3) 왜곡을 이용한 예술 의상

예술 의상 작품에서 나타난 왜곡 기법은 휘거

나 비틀린 형태적인 변형으로 나타났고, 부분과 부분을 모순되게 결합시키거나 소재를 이질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0>은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으로,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뒤쪽으로 밀려가는 듯 왜곡된 실루엣의 예술 의상이다. 단단하고 조각적인 라텍스 드레스는 수평으로 뻗어가는 종유석 모양처럼 기형적으로 왜곡되게 표현되었다. <그림 21>은 아르카디우스(Arkadius)의 작품으로, 의복의 프로포션(proportion)을 깨고 얼굴아래 가슴부분을 비정상적인 볼륨으로 왜곡시킨 형태의 예술 의상이다. <그림 22>는 빅터 앤 롤프의 작품으로, 중심에 있어야 하는 앞여밈과 칼라부분이 어깨 쪽에 위치하도록 의복구성방식을 비틀어 왜곡시킨 예술 의상이다. <그림 23>도 빅터 앤 롤프의 작품으로,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마치 침대 위에 누운 듯이 보이도록 의상과 베개를 결합하여 왜곡시킨 예술 의상이다. 머리카락까지



<그림 20> 후세인 샬라안
2009 S/S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21> 아르카디우스
2000 S/S 컬렉션
(출처: www.arkadius.com)



<그림 22> 빅터 앤 롤프
2006 S/S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23> 빅터 앤 롤프
2006 F/W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24> 닉 케이브
사운드 슈트, 2011년
(출처: www.jackshainman.com)



<그림 25> 수지 맥머레이
위도우, 2009년
(출처: www.susiemacmurray.co.uk)



<그림 26> 리 샤오펡
포슬린 드레스, 2004년
(출처: www.treehugger.com)

섬세하게 연출하여 왜곡된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4>는 닉 케이브(Nick Cave)의 작품 『사운드 슈트(Sound Suit)』로, 머리까지 감싸는 왜곡된 슈트에 화려한 장식을 한 예술 의상이다. 입고 사운드에 맞춰 몸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위한 것으로, 슈트의 화려한 겉과 반대로 슈트 안의 고립되고 분리된 소외를 표현하였으며, 의상에 다른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그림 25>는 수지 맥머레이의 작품 『위도우(Widow)』로, 이질적인 소재인 드레스 메이킹 핀으로 만든 메탈릭 드레스의 예술 의상이다. 핀을 원단에 꼽아 털처럼 보이도록 하였으며,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로 왜곡시켜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그림 26>은 리 샤오펡(Li Xiaofeng)의 작품 『포슬린 드레스(Porcelain Dress)』의복소재가 될 수 없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모순되게 결합을 시켜 의상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재구성해 왜곡시킨 예술 의상이다. 이처럼 왜곡 기

법은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의 이미지를 거부하여 비정상적이고 부조화되게 만들어 낯설어 보이므로 일탈을 표현하게 된다.

(4) 착시를 이용한 예술 의상

예술 의상 작품에서 나타난 착시 기법은 상황적으로 착시가 일어나도록 연출되거나 디자인선, 소재, 디테일, 트랜스퍼 등에 의해 표현적으로 착시가 일어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27>은 아르카디우스의 작품으로, 금빛 소재와 후광을 활용하여 비잔틴(Byzantine)의 이콘화(icon)를 재현한 예술 의상이다. 평면적인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착용이 가능한 입체적인 형태이다. <그림 28>은 코믹스 원더(Cosmic Wonder)의 퍼포먼스 프로젝트 작품 『A Shadow Necessary for Windows』로, 커튼과 같은 원단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을 모델이 커튼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연출된 예술 의



<그림 27> 아르키디우스
2002 F/W 컬렉션
(출처: www.arkadius.com)



<그림 28>코스믹 원더 퍼포먼스 프로젝트,
2002년 (출처: www.cosmicwonder.com)



<그림 29>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
2004 F/W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30> 장 폴 고티에
2002 S/S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31> 끌므 데 가르송
2006 F/W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상이다. 그러나 실재는 커튼과 드레스가 하나의 형태로 이어져 있어 모델이 커튼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림 29>는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의 작품으로, 모델의 머리카락이 의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머리카락과 같은 소재로 의상을 제작한 예술 의상으로, 소재의 혼란에 의한 착시이다. <그림 30>은 장 폴 고티에르의 작품으로, 얇은 소재를 통해 인체가 비치어 보이지만, 실제로 옷에 인체의 형상을 프린트하여 착시를 일으킨 예술 의상이다. <그림 31>은 끌므 데 가르송의 작품으로, 재킷 위에 원피스를 겹쳐 입은 것처럼 한 벌에 두 아이템이 관찰되는 예술 의상으로, 유머러스하게 시각적 혼돈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착시 기법은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시각적인 착각에 의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며 엉뚱한 상상력과 신선한 시각적 자극을 일으킨다.

2) 테포르마시옹의 조형 특성에 따른 작품분석

(1) 확대성이 나타난 예술 의상

예술 의상에 있어서 확대성은 의도적으로 대상의 균형과 질서를 깨뜨려 극대화시켜 나타났다. <그림 32>는 빅터 앤 롤프의 과도한 주름장식의 예술 의상으로, 버슬(bustle)과 엘리자베스 칼라(Elizabeth collar)처럼 사용함으로써 극대화된 거대

조형을 표현하였다. <그림 33>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과도한 스커트와 거대한 모자의 예술 의상으로, 스커트는 엄청난 크기의 크리놀린(crinoline)으로 확장시키고, 거대한 모자는 네 명이 지지대를 받칠 정도로 확장시켜 표현하였다. 이처럼 예술 의상에 있어서 확대성은 인체의 윤곽에 비해 공간적으로 크게 확장되어 표현되었으며, 확대된 크기의 작품을 통해 확장된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유희성이 나타난 예술 의상

예술 의상에 있어서 유희성은 의도적으로 대상을 이질적인 요소의 대립시키거나 탈구성적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34>는 펠케 아제마(Femke Agema)의 작품 『토텐(Totem)』으로, 기하학적 도형과 의상의 조합으로 된 예술 의상이다. 의상을 부분으로 해체시키고, 일부분을 기하학적인 입체도형의 장난감처럼 연결시켜 기발하고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그림 35>도 펠케 아제마의 붕제인형으로 구성된 예술 의상으로 모피착용 반대의 의미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 이처럼 예술 의상에 나타난 유희성은 엉뚱한 상상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웃음과 쾌감 등이 표현되었으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풍자적이고 희화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32> 빅터 앤 롤프
2010 F/W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33> 요지 야마모토
2000년 F/W 컬렉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34> 펠케 아제마
토탈 프로젝트, 2010년
(출처: www.femkeagema.nl)



<그림 35> 펠케 아제마
2010 F/W 컬렉션
(출처: www.femkeagema.nl)



<그림 36> 알렉산더 맥퀸
2010 F/W 컬렉션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7> 레이첼 프레이리
2012 S/S 컬렉션
(출처: www.rachelfreire.com)



<그림 38> 니콜라인
리브 안데르센, 2011년
(출처: www.nikolinelivandersen.dk)



<그림 39> 헬렌 스토레이
2011년
(출처: www.samsungdesign.net)

(3) 기괴성이 나타난 예술 의상

예술 의상에 있어서 기괴성은 그로테스크하거나 기괴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 queen)의 작품으로, 새장에 갇혀 있는 검은 새를 연상시키는 예술 의상이다. 깃털의 상의와 밀착된 하의, 새장 같은 머리장식을 통해 어둡고 기괴한 인상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37>은 레이첼 프레이리(Rachel Freire)의 작품으로, 암소의 젖꼭지로 만든 예술 의상이다. 작가는 쓰레기로 버려질 재료를 재활용하였으나 기괴한 소재로 인해 역겨움이 느껴진다. 이처럼 예술 의상에 나타난 기괴성은 인체의 기형적인 변형이나 혐오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되었으며, 역설적인 충격을 통해 본질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개념적인 의도를 독특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4) 가상성이 나타난 예술 의상

예술 의상에 있어서 가상성은 비현실적인 현상을 상상력과 착시를 통해 재현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38>은 니콜라인 리브 안데르센(Nikoline Liv Andersen)의 작품으로, 독특한 소재의 사용과 회화적 분장으로 우아하고 환상적으로 표현한 예술 의상이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원숭이로 표현하고, 스트로우(straw)를 이용한 우아한 프린지(fringe) 장식의 스커트를 만들고, 회화에 가까운 흰 분장으로 죽음을 가상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9>는 헬렌 스토레이(Helen Storey)의 작품으로, 과학적인 기술과 접목시켜 소재가 물에 닿으면 서서히 분해되도록 만든 예술 의상이다. 잠재적으로 사라질 미래를 현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예술 의상에 나타난 가상성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비현실적 환상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전위적으로 표현하고

자 하였다.

2.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의 빈도분석

1)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의 빈도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의 사용빈도를 <표 1>에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왜곡(35.59%), 과장(31.07%), 단순화(16.95%), 착시(16.38%)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왜곡과 과장이 많이 사용된 이유는 데포르마시옹의 표현이 형태적 변형을 통해 시각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왜곡 기법 중 소재를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왜곡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부분과 부분을 모순되게 결합시킨 왜곡과 형태를 비트는 왜곡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초기의 왜곡은 형태를 비트는 왜곡과 같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현대는 여러 가지 독특한 왜곡의 표현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소재를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왜곡은 소재와 기술의 발달로 의복소재가 아닌 금속, 플라스틱, 라텍스 등으로 독창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부분과 부분의 모순을 되게 결합시킨 왜곡은 해체주의경향에 의해 의복구성의 표현요소들을 변형과 재구성을 통해 새롭게 조합시켜 부조화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과장 기법은 대부분 신장보다 확대의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피의 확대가 시각적으로 더 입체적이고 강한 효과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왜곡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단순히 작품을 크게 과장하는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빅터 앤 톨프나 후세인 살라얀의 컬렉션에서 선보여진 것처럼 기계적인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공간 확대의 과장도 늘어났다.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단순화 기법 중 간결한 일체형의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플한 일체형에 첨단소재를 사용하여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순화도 나타났다.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착시 기법은 표현적으로 착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초현실주의의 영향과 소재와 기술의 발달로 표현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을 각 항목별로 세분화시켜 사용된 빈도를 살펴보면, 크기에 의한 과장(24.29%)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표현적 착시(13.56%)와 소재를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왜곡(12.43%)이 많이 사용되었다. 간결한 일체형의 단순화(9.04%), 부분과 부분을 모순되게 결합시킨 왜곡(7.91%), 형태를 비트는 왜곡(7.34%), 길이에 의한 과장(6.78%) 등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 1>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의 빈도

분석내용		작품 수(빈도%)	
과장	크기	43(24.29)	55(31.07)
	길이	12(6.78)	
단순화	기하학적 형태	5(2.82)	30(16.95)
	단순한 색상	9(5.08)	
	간결한 일체형	16(9.04)	
표현방법 왜곡	형태 왜곡	13(7.34)	63(35.59)
	위치의 변경	6(3.39)	
	부분과 부분을 모순되게 결합	14(7.91)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	22(12.43)	
	다른 기능을 부여	8(4.52)	
착시	상황적	5(2.82)	29(16.38)
	표현적	24(13.56)	
계		177(100)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빈도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도 크기에 의한 과장이 많이 나타난 것은 다양한 표현기법 중 작가의 조형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크기에 의한 과장이 용이하고, 눈에 띄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적 착시는 초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중첩, 반복에 의한 착시, 착장에 의한 착시 등 다양한 방법들로 제시되고 있다. 소재를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왜곡은 현대 예술 의상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물질에 대한 연구와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 때문이다.

2)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특성의 빈도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특성이 나타난 빈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확대성(33.95%)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외의 기괴성(25.31%), 유희성(20.99%), 가상성(19.75%)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입을 옷이 아닌 보는 옷이 추가 되는 형태의 예술 의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가 큰 확대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형특성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난 이유는 작가의 의도나 개성이 각기 다른 양식들로 다양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확대성이 나타난 예술 의상은 주로 과장과 왜곡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은 단순한 크기의 과장이 많았지만, 반복된 형태의 중첩을 통해 극대화를 보이기도 하고, 여러 겹을 덧입어 만든 거대조형도 나타났다. 이러한 확대성은 현실한계에 도전하는 작가의 실험적 경향이 잘 나타났다.

기괴성이 나타난 예술 의상은 주로 왜곡과 착시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대부분 인체의 기형적인 변형이나 혐오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괴성은 역설적인 충격을 통해 표현하고자하는 작가의 독특함이 반영되었다.

유희성이 나타난 예술 의상은 주로 과장과 착시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엉뚱한 상상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나친 과장, 풍자적인 조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희성은 작가의 유티와 재치를 잘 나타낸다.

가상성이 나타난 예술 의상은 주로 착시, 왜곡, 과장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표현의 한계가 없으면서 자유분방한 작가의 사고를 그대로 잘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가상성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비현실적 환상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전달하였다.

<표 2>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특성의 빈도

분석내용		작품 수(빈도%)
조형 특성	확대성	55(33.95)
	유희성	34(20.99)
	기괴성	41(25.31)
	가상성	32(19.75)
계		162(100)

VII. 결 론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에서는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을 분석, 고찰하였으며, 작가의 창작의도와 경향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을 분석한 결과

현대 미술작품을 그대로 재현한 예술 의상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기

존의 미술작품을 재현 또는 응용하여, 자신이 받은 예술영감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또 미술작품에 나타난 특징이나 표현기법을 응용하면 친숙한 이미지가 전달되므로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예술 의상은 미술작품의 재현이 아닌 다양한 표현과 상징적인 제시를 통해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현대예술의 탈장르를 통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면이 부각되어 작가의 예술 감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을 분석한 결과

1) 과장 기법은 거대조형처럼 크기를 확장하거나 길이를 신장한 것이 주로 나타났고, 과도한 디테일의 중첩을 이용한 것도 나타났다. 또한 빅터 앤 폴로나 후세인 살라얀의 컬렉션 등에서 선보여진 기계적인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공간 확대의 과장도 나타났다. 이는 비정상적인 과장을 통해 시각적 부조화를 만들어 놀라움과 의외성을 유발하고, 작가의 의도에 집중시키고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단순화 기법은 최소한의 표현요소로 간결화시켜 일체형으로 나타내거나 기하학적인 형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단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레슬리 딜의 작품과 같이 시를 직접적으로 의상에 넣는 경우 예술 의상의 간결한 표현과 언어적 특성이 잘 표현되고 있다. 이는 모더니즘이나 미니멀리즘처럼 단순화된 표현을 통해 작품의 본질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왜곡 기법은 다양한 변화를 준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재를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왜곡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기술과 소재의 발달에 의해 금속, 플라스틱, 고무, 실리콘 등을 의복소

재로 변화시켜 독창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세인 살라얀이 2009년 S/S 컬렉션 작품에서 라텍스 소재를 사용하여 중력에 위배되는 기형화된 실루엣을 표현한 것처럼 소재와 실루엣을 함께 왜곡시켜 표현한 것도 많이 나타났다.

4) 착시는 주로 표현에 의한 착시가 많이 나타났고, 간혹 상황에 의한 착시도 나타났다. 이는 초현실주의의 영향과 표현기술의 발달로 소재표현의 영역이 넓어져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장 폴 고티에나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 나타난 프린팅이나 모헤어 소재에 의한 시각적인 혼돈은 현실과 허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5)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을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면, 왜곡(35.59%), 과장(31.07%), 단순화(16.95%), 착시(16.38%)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왜곡과 과장이 많이 사용된 이유는 데포르마시옹의 의도적인 형태변형이 시각적으로 쉽게 잘 표현되기 때문이다.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을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크기에 의한 과장(24.29%)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표현에 의한 착시(13.56%), 소재를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왜곡(12.43%)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빈도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도 크기에 의한 과장이 많이 나타난 것은 다양한 표현기법 중 작가의 조형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크기에 의한 과장이 용이하고, 눈에 띄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특성을 고찰한 결과

1) 확대성이 나타난 경우는 과장과 왜곡 등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대한 스케일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숨기거나 확장된 자아를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다. 또한 현실의 한계에 도전하고자하는 작가의 실험

적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유희성이 나타난 경우는 과장과 착시 등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엉뚱한 상상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놀라움과 웃음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재치가 잘 나타난다. 또한 팝 같은 문화적 트렌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기괴성이 나타난 경우는 왜곡과 착시 등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가의 의도가 혐오나 일탈과 같은 불쾌한 충격적 시도를 통해 작가의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의도가 잘 나타난다. 또한 역설적이고 충격적인 시도는 작가의 본질적인 것을 찾고자하는 개념적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가상성이 나타난 경우는 착시, 왜곡, 과장 등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비현실적 환상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전위적인 의도가 나타난다. 또한 초현실주의처럼 표현의 한계가 없는 자유분방한 작가의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예술 의상 작품에 표현된 테포르마시옹의 조형특성의 빈도를 살펴보면, 확대성(33.95%)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외의 기괴성(25.31%), 유희성(20.99%), 가상성(19.75%)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입을 옷이 아닌 보는 옷이 주가 되는 형태의 예술 의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가 큰 확대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형특성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난 이유는 작가의 의도나 개성이 각기 다른 양식들로 다양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골고루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테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을 살펴본 결과, 과거에는 예술작품의 재현에 불과했던 예술 의상이 작가의 독자적인 개성에 따라 다양한 테포르마시옹의 기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 테포르마시옹을 이용한 예술 의상은 작가들이 표현하고자하는 어떤 개념을 형상화시키고 시각화시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닉 케이브나 헬렌 스트레이의 작품처럼 테포르마시옹을 이용하여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이 예술 의상으로 표현하거나,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처럼 과학적 첨단기술과 특이한 소재들을 통해 보다 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예술 의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술 의상은 테포르마시옹의 여러 기법이 혼합되어 다양한 조형특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다 복잡한 예술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술 의상에 나타난 테포르마시옹은 일반 패션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외관적 형태에 치중하여 세부적인 요소를 사진만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문가 집단에 의해 사진 분석을 하였으나 다소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테포르마시옹의 기법을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창작을 통한 실험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서승미 (2005). 현대 예술 의상에 표현된 테포르마시옹 이미지, 복식, 55(7), pp.38-50.
- 2) 주리 (2009). 니트 패션에 나타난 테포르마시옹에 관한 연구, 패션과 니트, 7(1), pp.72-81.
- 3) 이지연, 조진숙 (2011). 모스키노 컬렉션에 표현된 테포르마시옹에 관한 연구, 복식, 19(3), pp.488-500.
- 4) 구글(검색어: The Power of Making), 자료검색일 2012. 1. 4. <http://www.vam.ac.uk>
- 5) 구글(검색어: Dress Codes: Clothing as Metaphor), 자료검색일 2012. 1. 4. <http://www.katonahmuseum.org>
- 6) 구글(검색어: Skin+Bones:Parallel Practices in Fashion and

- Architecture), 자료검색일 2012. 1. 4. <http://www.moca.org>
- 7) 이해주 (1990. 3). 실용의상과 미술의상, 월간공예, 25호, p.87.
 - 8) 허정선 (2006). 20세기 후반 미국 예술의상운동의 표현적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 6(2), p.101.
 - 9) 월간미술 편집국 (1998). 세계미술용어 사전, 서울: 월간미술, p.89.
 - 10) 김화영 (2009). 데포르마시용을 통한 인체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6.
 - 11) 이효진 (2000).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용에 관한 연구, 복식, 50(3), p.14.
 - 12) 서승미. 앞의 책, pp.38-50.
 - 13) 이지연, 조진숙. 앞의 책, pp.494-497.
 - 14) 김혜경, 김보람 (200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러디 표현기법을 응용한 벨트 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8(1), p.24.
 - 15) 서승미. 앞의 책, pp.38-50.
 - 16) 주리. 앞의 책, pp.74-75.
 - 17) 이지연, 조진숙. 앞의 책, p.497.
 - 18) 이지현, 노윤선 (2011). 빅터 & 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4), p.67.

Expressive Techniques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in Art to Wear Since 2000

Kim, Eun Jung · Park, Ok Lyun[†]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yung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yungsung University[†]

Abstract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various expressive techniques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in art to wear since 2000 and to obtain design samples that can be applied to art to wear pieces by exploring artists' intentions and trends. Methods of this study are theoretical inquiry and case analysis with the photographs of art to wear. The subjects are the pieces of art to wear since 2000 where the artist's intention is expressed. The study shows that the expressive techniques of deformation are distortion, exaggeration, simplification and optical illusion,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expressive techniques of deformation are distortion and exaggerati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are expansion, grotesque characteristics, pleasure, virtuality, etc.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ing the expressive techniques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the trends in art to wear since 2000 show subjective and individual styles using various techniques of deformation to suit individual tastes, not recreations of previous works of art. Also, the works shows various and symbolic expressions that reflect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culture and social issues.

Key words: art to wear, deformation, expressive technique, design characteristics